

"신비의 세계로!"  
(Into the World of Mysteries)  
사도행전(Acts) 2:1-8, 12-13

1.

부활하신 주님께서 40 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신 후, 사도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행 1:14). 오순절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의 솟아오를 때 헛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2-3 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4 절)

2.

사도들은 연거푸 터지는 이해못할 사건들로 인해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십자가 처형,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인간의 이해력 너머에 있는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모든 혼란과 충격과 의문을 말끔히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체험입니다.

"왜 하필 오순절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더 없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주님께서 오순절을 D-Day 로 고르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성경에서 '칠칠절'(the Feast of Weeks)이라고 불렀던 감사 축제였습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고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주님께서 그 이전까지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의 열매를 추수하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씨앗을 뿌린 것일테고, 30 년 동안 나사렛의 한 청년으로 사신 것은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과정이었을 것이고, 3 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었을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은 열매로 무르익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들과 첫 신도들이 그 열매를 손에 얻은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오순절에 사도들이 손에 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만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주목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풀잎을 보고 바람을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을 보고 성령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얻은 열매는 방언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활동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일뿐입니다.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무르익어 성령의 선물이 모두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임재에 눈 뜨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 때 그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영적인 에너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인격이십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용서하는 인격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첫째, 성령은 바람처럼 혹은 공기처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가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움직이는대로 우리 몸을 맡기듯,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은 당신의 판단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은 공기처럼 생명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창 2:7)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기운'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루아흐(성령)'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면 생명력이 약동합니다.

그 성령께서 사도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신비의 세계로 그들을 불러 들이셨습니다. 그 신비의 세계는 마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 성령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전에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일들을 보게 되고, 전에 하지 못했던 거룩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사도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거둔 열매였습니다.

#### 4.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사도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놀라자 베드로 사도가 무슨 영문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행 2:17)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예언자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사모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과 꿈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젊은이들이 거룩한 일을 소망하고, 노인들이 영원한 것을 꿈꾸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았으니 새로운 것을 말하고 꿈꾸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비'(mystery)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신비의 세계가 열리고, 일상 속에서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주의'(mysticism)는 위험한 것입니다. 초월적이고 비범한 사건에 집착하는 태도가 신비주의입니다. 그런 것에 붙들리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반면, '신비'는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삶 속에 들어왔다면, 신비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 5.

사도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나 그 때 일어났던 것처럼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그 때나 지금이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부드럽고 신비롭게 춤을 추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손길에 눈 뜨고 그분의 손길에 맡기라고 말입니다. 신비의 세계 안으로 들어 오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사모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하시고, 마음 모아 찬양하시며, 차분히 그리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된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 더욱 성령을 사모하시고 또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회자료> 2014 년 6 월 8 일 주일 설교

"신비의 세계로!"(Into the World of Mysteries)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185 장(통 179)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2 장 전체를 읽습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핍니다. (10 분)
4. 말씀의 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성령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믿고 있으며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 3) 최근에 성령의 손길이라고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것이 성령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까?
  - 4) 더 깊이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 당신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6. 기도
  - 1)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 2) 매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별하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196 장(통 174)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